

화학기업 50% “R&D투자 확대”

산자부, 2004년 43.7%가 인력확충 ... 경기전망은 낙관 못해

국내기업 10개 중 9곳이 2004년 연구개발(R&D) 투자를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. 화학기업들도 91.3%가 2004년 R&D투자를 확대 또는 유지할 것으로 집계됐다.

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재단이 2003년 말 734개 기업을 대상으로 R&D투자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,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48.4%, 현상유지 41.8%, 축소는 7.8%로 나타났다.

대기업의 54.8%가 R&D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, 중기업은 58.0%, 소기업은 44.6%에 달했다. 또 수송기계(63.9%), 전기·전자(55.3%), IT(50.9%) 등은 절반 이상이 증액 의사를 밝혔다.

화학기업들은 응답기업의 48.4%가 증액을, 42.9%가 현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2003년에는 24.6%만이 R&D투자를 확대했으며, 61.1%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R&D투자 현황 및 전망

(단위: %)

구 분	R&D투자 계획(2004) (2003년 실적 대비)			R&D투자 실적(2003) (2003년 초 계획 대비)		
	증 액	유 지	축 소	증 가	비 슷	감 소
전 체	48.4	41.8	7.8	27.9	53.4	16.8
수송 기계	63.9	24.6	11.5	42.6	42.6	14.8
기 계	46.7	45.6	6.7	24.4	62.2	12.2
소 재	38.7	49.5	5.4	32.3	46.2	16.1
전기 전자	55.3	34.5	9.2	29.1	49.0	20.9
섬 유	39.5	55.8	2.4	20.9	60.5	16.3
화 학	48.4	42.9	7.9	24.6	61.1	13.5
I T	50.9	41.8	7.3	25.5	58.2	16.4
기 타	30.0	55.0	8.3	21.7	51.7	20.0

전체 조사대상 기업 중 48.1%는 2003년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했다고 응답했고 2004년에는 45.1%가 연구인력을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. 특히, IT(56.4%), 수송기계(49.2%), 전기·전자(56.8%), 기계(48.9%) 등이 주로 인력충원에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냈다.

R&D 인력 충원계획

(단위: %)

구 분	R&D 인력충원 계획(2004)			R&D 인력현황(2003)		
	확 충	유 지	축 소	과 잉	적 정	부 족
전 체	45.1	50.1	2.6	1.5	47.8	48.1
수송기계	49.2	49.2	1.6	0.0	42.6	57.4
기 계	48.9	47.8	3.3	2.2	62.2	35.6
소 재	24.7	60.2	4.3	2.2	47.3	39.8
전기전자	56.8	40.8	2.4	0.0	40.3	58.7
섬 유	37.2	60.5	0.0	7.0	58.1	32.6
화 학	43.7	53.2	2.4	2.4	50.8	45.2
I T	56.4	36.4	5.5	1.8	47.3	49.1
기 타	25.0	70.0	0.0	0.0	45.0	50.0

화학기업들은 2003년 R&D 인력이 적정수준이거나 부족했다고 밝히면서 2004년 충원계획으로는 43.7%가 확충, 53.2%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.

2004년 경기전망은 소재, 화학 등을 제외하고 전기전자, 기계, IT 등 대부분의 업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중·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화학기업들은 2004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2/17>